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5년 2월

교육학석사학위논문

To-부정사의 보충어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은 정

To-부정사 보충어절 연구

A Study of To-infinitive Clauses Functioning
as Complement

2015 년 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은 정

To-부정사 보충어절 연구

지도교수 이 남 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전공

김 은 정

김은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 대학교 교수 김 경 자 인

심사위원 조선 대학교 교수 강 희 조 인

심사위원 조선 대학교 교수 이 남 근 인

2014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v
I. 서 론	1
II. To 부정사 보문 분석	3
A. Prefer 유형동사	3
B. Try 유형동사	8
C. Believe 유형동사	12
D. Persuade 유형동사	16
E. Promise 유형동사	21
F. Seem 유형동사	25
G. Tough 구문	29
III.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서의 to 부정사	37
A. 분포	39
B. 교과서 분석의 문제점	42
IV. 결 론	52
참고문헌	54

ABSTRACT

A Study of To-infinitive Clauses Functioning as Complement

Kim, Eun-jeong

Advisor : Prof. Namgeun, Lee. Ph.D.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ll languages have their own consistent patterns of the sentences and the basic unit consists of more than one or two clauses. The center of each clause is 'verb'. The syntactic category and structure of complements are decided according to the semantic properties of verbs. Infinitives have various functions and complex syntactic structures. Among them, English learners hav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o-infinitives as non-finite verb -forms(participle, gerund, to-infinitiv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o-infinitive clauses functioning as complements that are differentiated in terms of verb-types.

Chapter II deals with infinitival complements that can be classified into 6 verb types(*prefer type*, *try type*, *believe type*, *persuade type*, *promise type* and *seem type*) together with *tough constructions*.

- (1) a. John *prefers* to leave early.
b. John *tried* to leave early.
c. He *believed* himself to be intelligent.

- (2) a. John *persuaded* Bill to leave early.
 b. John *promised* Sally to feed himself.
- (3) a. John *seemed* to ignore poor students.
 b. Bill is *tough* for John to tease.

(1a) and (1b) appear to have the same construction of 'V+to infinitive' but a principal analysis would reveal syntactic difference in their construction. For instance, *prefer type* verbs permit a for-to complementizer insertion and passive voice. However, *try type* verbs don't accept both and the subject of to-infinitive is not always overtly realized. *Believe type* verbs in the (1c) always have the construction of 'V+[NP+to infinitive]' and the postverbal NP is analyzed as exceptional case-marking by the verb of the superordinate clause, *believe*.

Persuade type verbs in the (2a) have the construction of 'V+[NP]+[to infinitive]' and the NP(Bill) is the indirect object of the matrix verb and the subject of to-infinitive complement(Object Control). Promise type verbs in the (2b) look like the same construction of 'V+[NP]+[to infinitive]' but the NP(Sally) after 'promise verb' is only an indirect object of the main verb and the subject of to-infinitive complement is 'John', the subject of the matrix verb(Subject Control).

Seem type verbs in the (3a) are explained by raising the subject(John) of to-infinitive complement and applying trace theory. However, the *tough construction* in the (3b) raises the object(Bill) of to-infinitive complement to the subject position of the matrix sentence. Each type verb and tough construction turn out to have different syntactic structures and semantic interpretations through these analysis.

In chapter III, data from the English textbooks of the high school are surveyed in order to find the frequency of to-infinitives

complements among all functions of to-infinitives. Several problems are found in explaining to- infinitives complements in the school grammar. The school textbooks treat different constructions as same constructions because of same surface structures and don't describe how those constructions are generated. They even provide wrong grammatical explanations related to tough construction. The analysis of to-infinitive clauses as complements treated in this study can be the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s that the school grammar currently has and develop better approach methods of teaching English grammar.

Chapter IV summarizes the syntactic and semantic attributes of *6 verb types* and *tough construction* with to-infinitive complements. These study can be helpful in understanding and teaching the complicated infinitival structures.

I. 서론

우리나라와 같은 EFL의 환경에서 영어 교육은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적인 문법 구조의 설명과 함께 문법적 특성에 관해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언어는 일정한 문장의 패턴이 있고 기본적인 단위로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절로 구성되며 각 절의 중심이 되는 것은 동사이다. 동사의 의미적 속성에 뒤에 따라오는 보충어의 여부와 그 보충어의 통사적 범주가 결정된다.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에서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구조는 여러 가지 기능과 위치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교문법에서 말하는 준동사(분사, 동명사, 부정사)로 사용되는 to 부정사에서 학생들의 언어 습득이나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영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문이고 또한 동사에 따라서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to 부정사가 들어있는 보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II장에서 다음과 같은 to 부정사의 보문이 사용되는 동사 유형을 알아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 (1) a. John *prefers* to leave early.
b. John *tried* to leave early.
c. He *believed* himself to be intelligent.
- (2) a. John *persuaded* Bill to leave early.
b. John *promised* Sally to feed himself.
- (3) a. John *seemed* to ignore poor students.
b. Bill is *tough* for John to tease.

(1a)와 (1b)의 문장들은 to 부정사의 주어가 외현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로 같은 형태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구조적 특성이 있고 (1c)의 경우는 문법적이지만 ‘*He believed to be intelligent.’는 왜 비문법적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른 동사 유형들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설명하겠다. (2)의 문장들은 상위문의 동사의 목적어를 취하는 형태로

는 같지만 *prefer* 동사 유형과 *believe* 동사 유형과는 구별이 되며 *persuade* 동사 유형과 *promise* 동사도 또한 다른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차이를 분석을 통해 알아보겠다. (3)의 경우도 둘 다 주어를 *it*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3a)는 *to* 부정사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 자리에 오고 (3b)는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상위문의 주어 자리로 올 수 있는 각각 다른 특성이 있음을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to* 부정사의 여러 기능 중에서 학교문법에서 명사적 기능에 해당하는 목적어와 보어의 기능의 사용 빈도수를 알기 위해 학교 문법에서 분류하는 *to* 부정사의 모든 기능의 사용 빈도수를 조사 할 것이다. 그리고 Ⅱ장에 분석한 동사 유형들, 즉 *prefer* 동사유형, *try* 동사유형, *believe* 동사유형, *persuade* 동사유형, *promise* 동사유형, *seem* 동사유형의 6가지와 *tough* 구문의 사용 빈도수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사유형과 *tough* 구문이 들어간 문장들을 전통적 학교문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학교문법 설명의 문제점들을 밝히고 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본 논문의 분석으로 찾고자 한다.

Ⅳ장의 결론에서는 동사 유형에 따른 *to* 부정사 보문의 통사구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할 것이다.

II. To 부정사 보문 분석

A. Prefer 유형

Chomsky(1981: 19-21)는 prefer 유형동사에 대해 부정사 보문의 주어를 갖지 않는 경우, 다음 (1a)문은 (1b)와 같이 기저구조가 설정된다. (1b)의 PRO¹⁾는 S'²⁾로 인하여 prefer 동사의 격 지배를 받지 않아 문법적이다.

- (1) a. John prefers to leave early
b. John prefers [s' [s PRO to leave early]

(1a)의 기저구조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1) PRO (pronominal anaphor): 음성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지만 비명시적으로 이해되는 주어(understood subject)로 전형적으로 비한정절(non-finite clause)의 주어위치에 제한하고 지배되지 않는 통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Chomsky, 1981: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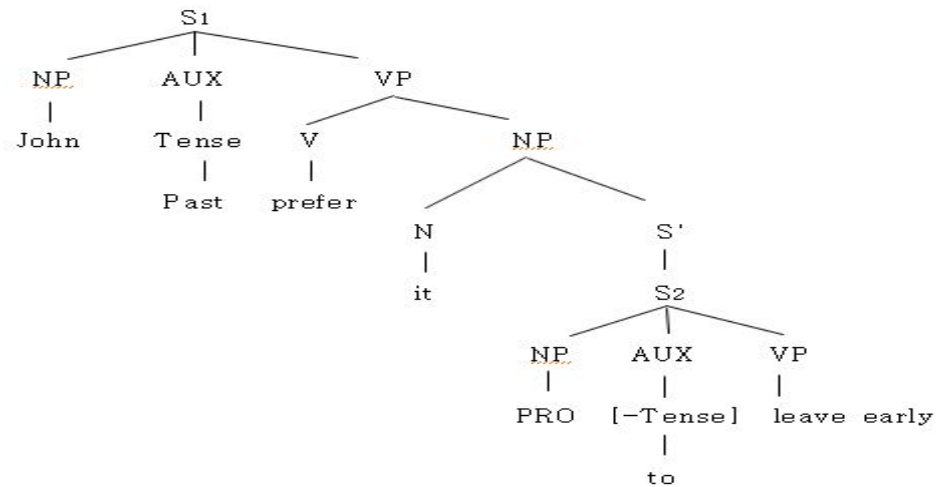
2) 어휘핵들은 NP, AP, PP, 그리고 INFL의 최대투영인 S'와 같은 하위범주화하고, Chomsky(1981)에 의하면 모든 절은 기저에서 S'의 통사구조를 가지며, S'는 보문소 COMP(Complementizer)와 명제부분(propositional component)인 S로 구성된다.

① [S' COMP[s NP INFL VP]

② a. S' → COMP S

b. COMP → ± WH 또는 for

c. S → NP INFL V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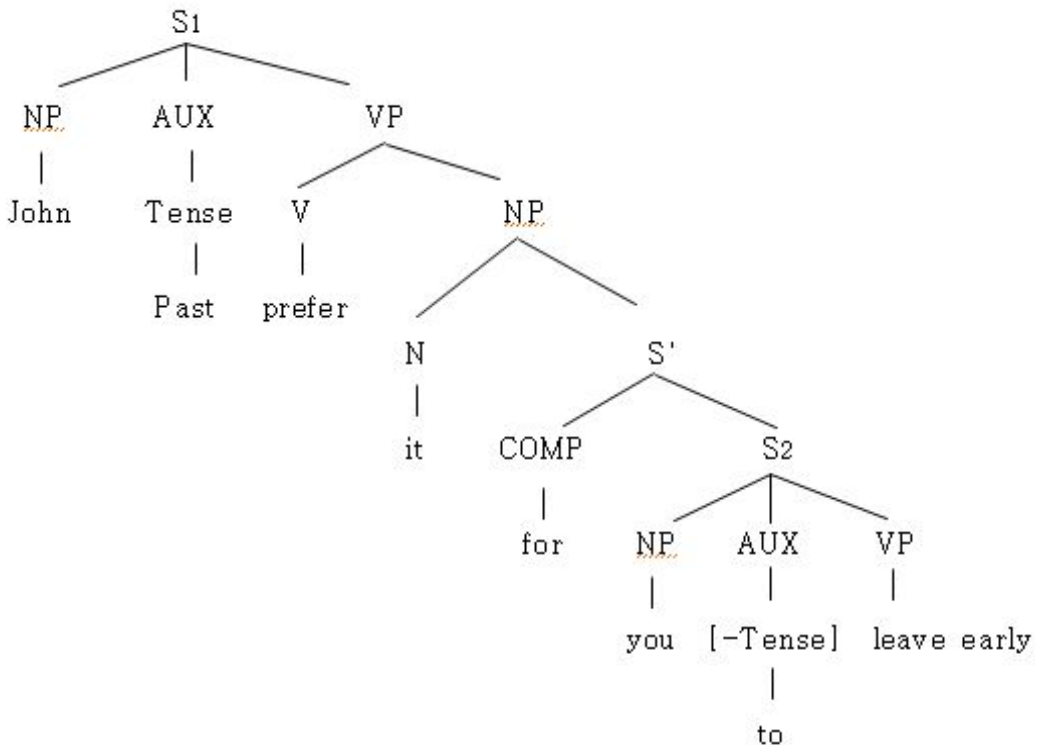
Prefer 유형동사가 부정사 보문을 갖는 경우, 아래 (3a)과 같은 문장의 기저구조를 (3b)와 같이 설정한다.

- (3) a. John prefers for you to leave early.
 b. John prefers [s' for [s you to leave early]].
 c. [s' COMP [s NP INFL VP]
 d. John prefers that you leaves early.

위 (3c)의 S 보문구조에 의해 INFL(AUX)이 [-Tense]일 때 위 (3b)의 부정사 구조가 파생되며, (3b)의 부정사 보문의 주어 you은 위 (3c)의 NP에 해당한다. 그리고 INFL이 [+Tense]일 때는 that 절과 상위문의 동사 prefer가 결합하여 위(3d)문을 파생 한다.

(3a)문의 기저구조를 수형도로 보면 다음 (4)와 같다.

(4)



홍순서(1998)에 따르면 Prefer유형 동사에 속하는 동사로 desire, dislike, hate, intend, like, love, mean, want 등을 들 수 있다. prefer 유형 동사들이 모문에 사용된 문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a. John preferred to leave early.
 b. John preferred you to leave early.
 c. John preferred for you to leave early.
 d. *John preferred you leaving.
 e. *John preferred for you leave.

(5a)는 동사 prefer의 부정사 보문 주어에 없는 경우이고, (5b)처럼 보문 주어에 모문 주어와 다를 경우 표층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와 달리 보문의 주어에 나타나는 경우는 주절의 주어와 다른 경우로 보문소 for와 함께 쓰인다. 이때 for는 임의적임을 (5b)와 (5c)를 통해 알 수 있

다.

그러나, for-to 구조에서는 상위문 동사들 간에 다음과 같은 구문상의 차이를 지닌다.

- (6) *John wants for you to leave early.
 *I desire for you to leave early.

즉, prefer, hate, intend 등의 동사는 for를 가지는 것이 임의적이거나 want나 desire 동사는 for를 가지면 비문법적이 된다.

- (7) a. What I prefer is for him to win.
 b. *What I prefer for is for him to win.
 c. What I want is for him to win.
 d. *What I want for is for him to win.

또한 (7)문과 같이 부정사 보문 for-to를 be동사 뒤에 두는 의사분열문³⁾이 되면, 상위문 동사와 for-to보문이 분리될 수 있으나, 상위문 동사 뒤에 전치사 for를 가지면 비문법적이다. 의사분열문의 부정사 보문에 for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기저구조에 for가 있음을 알 수 있고, (8)문에서는 상위문의 동사 prefer 유형동사와 부정사 보문 사이에 부사구가 삽입될 때, 보문소 for를 삭제할 수 없음이 이를 뒷받침 한다. 그러나, want나 desire 동사는 기저구조에 있는 for가 표면 구조에서는 의무적으로 삭제된다.

- (8) a. I prefer very much for Mary to go.
 b. *I prefer very much Mary to go.
 c. I want very much for Mary to talk with me.
 d. I want very much Mary to talk with me.

3) pseudo-cleft sentences : 의사 분열문으로 예를 들어, "Tom likes wine."에 대해 'What'을 사용해 원래의 문장을 분리한 "What Tom likes is wine."을 말한다. 이때 분리하는 강조할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Prefer 유형동사의 for-to부정사 보문은 try 유형동사와 달리 수동변동을 적용하여 주어가 될 수 있다.

- (9) a. we should try to learn more before we make a judgment.
b.*To learn more before we make a judgment should be tried.
-고1 능률(찬) 8과-

- (10) a. I prefer to make a long plan.
b. To make a long plan is preferred by me.
-고1 두산(윤) 1과-

- (11) a. I prefer for him to work for half the wages
b. For him to work for half the wages is preferred by me .
-고1 두산(윤) 5과-

그리고 (10b)의 수동문에 외치이동변형⁴⁾을 적용하면 다음 (12)문이 된다.

- (12) It was preferred by me to make a long plan.

또, 이 유형동사와 결합하는 부정사 보문은 there을 삽입할 수 있다.

- (13) I prefer [there to be no soup]

(13)의 there 삽입의 의미를 보자면 지시적인 it과 장소의 there과는 구분되는 의미상 내용이 없는 허요소(expletive element)인 there 과 it은 항상 주어의 위치에만 나타난다. 그래서 there이 NP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NP-to VP가 하나의 절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위에서 제시한 prefer 구조의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 먼저, prefer는 주어와 목적어의 2개의 의미역을 필요로 하는 2

4) 외치이동변형(extraposition) : 모문의 주어 위치에 있는 내포문을 모문의 VP 뒤로 이동시킨 후, 이동된 자리에 허사 it을 써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외치이동규칙이 적용되면 it-deletion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It-삭제규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항동사(2-place predicate)이다. prefer는 의미역을 중심으로 나누면 V [NP to VP]의 구조를 갖는다. 즉 문장을 넣어 보면 (14c)의 구조로 본다.

- (14) a. I prefer a doctor
 b. I prefer a doctor to examine the boy.
 c. I prefer [a doctor to examine the boy.]

그리고 동사 뒤의 보문을 수동문으로 전환했을 때 능동문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동사의 보문 구조가 다를 수 있다.

- (15) a. I prefer [a doctor to examine the boy].
 - Palmer(1974;181-2)-
 b. = I prefer [the boy to be examined by a doctor].

- (16) a. I persuaded [a doctor to examine the boy].
 b. ≠ I persuaded [the boy to be examine by a doctor].

(16a)와 (16b)는 동의문이지만 (16a)에서 설득당하는 사람은 a doctor이지만 (16b)에서는 the boy가 되어 설득하는 대상이 달라져서 능동의 부정사 보문과 수동의 부정사 보문이 달라져서 동의문이 되지 못한다. (15)와 (16)의 예문을 통해 prefer와 persuade와는 다른 구조임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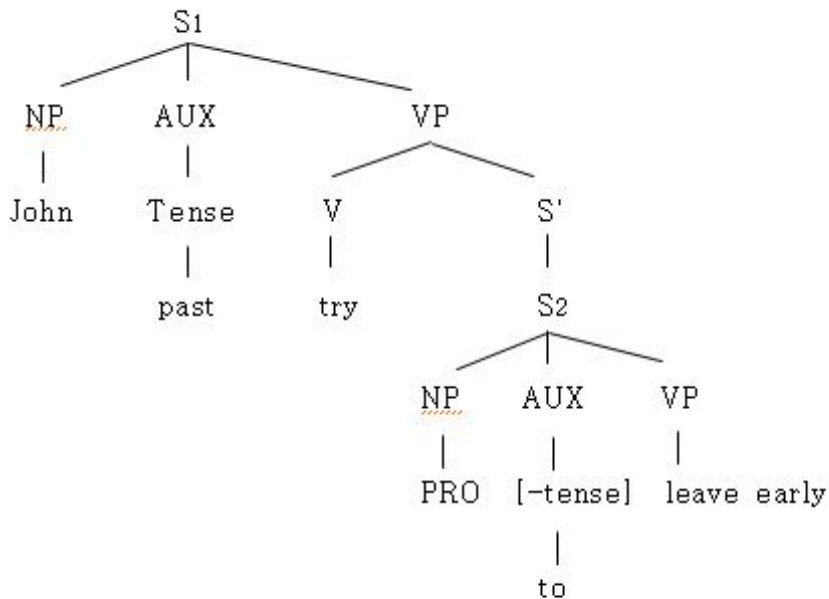
B. Try 유형동사

Chomsky(1981: 52)의 S' 구조분석에 따르면 보문의 기저구조에서 INFL이 [-Tense]일 때 부정사 보문이 파생되는 부정사 보문과 결합하는 try 유형 동사가 갖는 아래 (1a)문의 기저구조를 다음 (1b)로 설정하고 있다.

- (1) a. John tried to leave early.
b. John tried [s' [s PRO to leave early]]

(1b)와 같은 기저구조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 (2)과 같다.

(2)



위 (1a)의 NP는 부정사의 주어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단순 부정사의 경우 PRO로 설정되는데, 이 PRO는 격 표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동될 필요가 없다. 위 (2)의 PRO는 지배받지 않는 위치에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상위문의 동사 try에 의한 격 지배를 막는 S'범주를 넘어 PRO를 지배할 수 없게 되어 위 (1b)와 같은 문법적인 문장이 파생된다. 하지만 부정사 보문의 주어가 어휘적 NP로 표면구조에 있게 되면 아래 (2)과 같이 비문법적이 된다.

- (2) a. *John tried Mary to leave early.
b. *John tried [s' [s Mary to leave]].

(2a)문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Mary가 격을 받지 못해서 격여과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2b)의 심층구조에서 tried는 Mary를 지배하고 목적격을 부여할 것 같지만, 이는 NP와 S'가 지배에 대해 장벽이 된다는 장벽조건에 의해서 격을 부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try 유형 동사는 반드시 모문의 주어와 같은 NP만이 to부정사의 주어가 되어야하고 try 는 그 NP는 PRO로 표층으로 나타나지 않는 동사 유형이다.

홍순서(1998)에 따르면 Try유형에 속하는 동사를 알아보면 condescend, hesitate, bother, endeavor, fail, dare, decline, manage 등을 들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동사들로 보충어로서 부정사와 결합하는데, 이러한 동사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동사유형의 하위범주화 자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유형 동사들이 유도하는 내포문 구조의 예는 다음 (3)과 같다.

- (3) a. John tried to leave early.
b. *John tried Mary to leave early.
c. *John tried for Mary to leave early.
d. *John tried for himself to leave early.
e. *John tried that Mary would leave early.

위 (3b)와 (3c)에서 부정사 보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와 지시가 동일하지 않고, 표면구조에 있으면 비문법적이고 (3d)와 같이 상위문의 주어 John과 부정사보문의 주어 John이 동일지시라 하더라도 부정사 보문의 주어를 삭제하지 않고 재귀대명사가 부정사 보문의 주어가 될 수는 없다. (3e)와 같이 that절을 보충어로 갖지 못한다.

Try 유형동사의 구문적 특징을 살펴보면 (4a)처럼 부정사 보문에 there 삽입을 할 수 없으며, (4b)과 같이 상위문의 주어로 there이 될 수 없다.

- (4) a.*Some students tried for there to be great students.
-Koster and May(1982:117)-
b.*There tried to be several of the committee at the door.
-AkmJian and Henry(1975:342)-

또한 Rosenbaum(1976:104)은 아래 (5b)문과 같이 try 유형동사와 결합하는 부정사 보문은 prefer와는 be 동사 다음에 두는 의사분열문이 될 때 비문이 된다.

- (5) a. She tried to talk with us.
b. *What she tried was to talk with us.

위에서 상위문의 동사가 의사분열문이 될 때 비문인 것으로 보아, 상위문의동사로서 try 유형동사는 what을 목적어로 택할 수 없기 때문에 (6)처럼 부정사 보문을 대명사 it이 대신할 수 없다.

- (6) *We expect him at least to chance but he didn't try it.

상위문의 주어와 부정사 보문의 주어는 동일지시가 되어 아래 (7a)문을 수동변형을 적용한 (7c)문과는 서로 동의문이 아니다. 따라서 상위문의 주어는 기저구조의 주어이자 표면구조의 주어가 된다. 이러한 통사적 특성을 통제 구문이라 하고 주어를 통제한다고 말한다.

- (7) a. They tried to elect John chairman.
b. They tried [s they to elect John chairman]
c. John tried to be elected chairman.
d. John tried [s John to be elected chairman]

아래 (8a)와 같이 to 부정사 보문이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없고 (8a)문을 to 부정사 보문에 외치이동변형을 적용하여도 (8b)처럼 비문법적이다.

- (8) a. *To examine John was tried by the doctor.
b. *It was tried by the doctor to examine John.
-Stockwell et al.(1973:527)-

위와 같이 수동문 전환, 의사 분열문, there 삽입 등이 비문이 되는 구

조적 특징을 보면 try 유형동사의 to 부정사의 보문은 prefer와는 달리 보문소 for가 없는 S의 구조만 갖는 것이다. 즉, 수형도에서 보듯이 prefer 유형동사의 부정사 보문은 NP가 관할하는 S이고 try 유형동사의 부정사 보문은 VP가 관할하는 차이에서 비롯된다.

C. Believe 유형동사

Believe 유형 동사는 지배-결속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저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 (1) a. I believe Mary to be intelligent.
b. I believe [s' [s Mary to be intelligent]].

(1a)는 구구조 규칙⁵⁾에 의해서 (1b)의 기저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3b)를 보면, 장벽이론에 의해서 S'는 장벽이 되어서 believe는 Mary에게 목적격을 부여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Mary는 to가 격 부여를 하지 못하는 [-Tense]의 성질을 가지므로 부정사 보문 내에서 격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1b)문장은 비문이 될 것이다. 하지만 (1b)문장은 문법적인 문장들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Chomsky(1980)는 S'-탈락(S'- Deletion)을 제안한다. 즉, D-구조에서는 구구조 규칙대로 부정사 보문이 S' 구조를 가지지만, 격 표시를 적용하는 S-구조에서 S'를 탈락시키고, S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예외적 격표시⁶⁾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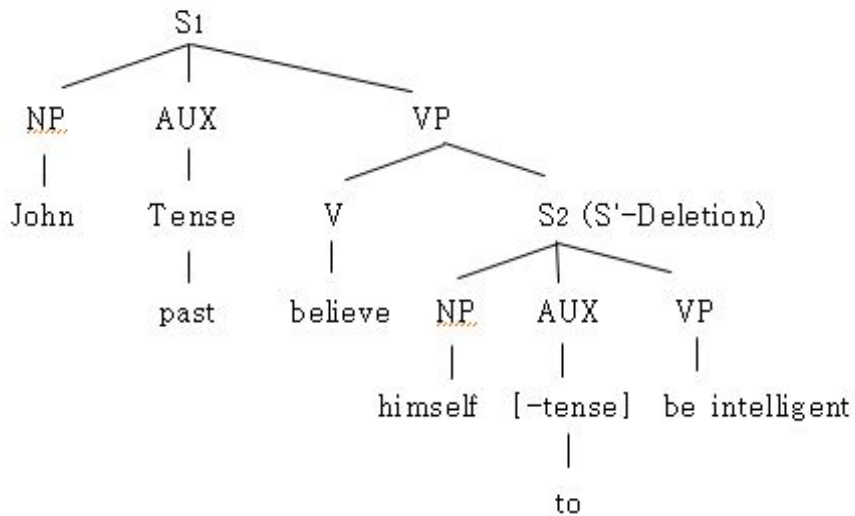
5) 구구조 규칙 : 모든 절은 주어와 가제야 한다. $S \rightarrow NP\ INFL\ VP$

6) 예외적 격표시(Execeptional Case Marking) : Chomsky(1980)는 D-구조에서는 구구조 규칙대로 부정사 보문이 S'구조를 가지지만 격표시를 적용하는 S-구조에서 S'를 탈락시키고, S구조를 가진다고 한다. 그래서 S'가 탈락하여 상위문 동사로부터 격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I believe [s Mary to be intelligent].

이러한 이론으로 Believe 유형동사가 상위문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 지시적일 때 나타나는 구조를 살펴보면 (1a)의 기저구조를 다음 (3)과 같은 수형도로 나타낼 수 있다.

(3)



- (4) a. He believes himself to be intelligent.
 b. He believes [s himself to be intelligent].
 c. *He believes to be the intelligent.
 d. *He believes [s PRO to be intelligent].

(4a)의 기저구조로 (4b)에서 부정사 보문이 S'-Deletion으로 S구조를 갖게 됨으로 believe의 격을 받아 상위문의 주어와 동일 지시가 됨으로 (4b)처럼 재귀대명사로 쓰게 된다. 반면에 (4c)가 비문이 되는 이유는 기저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PRO는 격을 받지 않은 자리에 와야 하므로 S가 되는 절에서는 believe의 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believe 유형동사에서는 PRO는 올 수 없게 된다.

홍순서(1998)에 따르면 believe 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을 살펴보면 consider, imagine perceive, suppose, think, assume, find, know, understand 등을 들 수 있다.

- (5) a. *John believed to be intelligent.
 b. John believed himself to be intelligent.
 c. John believed Mary to be intelligent.
 d. *John believed for Mary to be intelligent.
 e. John believed that Mary was intelligent.

Persuade 유형의 동사와 표면구조가 같게 나타나는 believe 동사는 또한 통사적으로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believe 동사는 persuade와 다른 prefer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의 2개의 의미역을 필요로 하는 2항 동사이다. 논항 구조로 보면 다음 (6)와 같다.

- (6) a. I believed Mary.
 b. V [NP to VP]
 c. I believed [Mary to be intelligent]

다음의 (7)은 persuade 유형의 통사구조 특성을 갖게 됨을 보여준다.

- (7) a. John believed himself to be intelligent.
 b. *John believed to be intelligent.

그러나 뒤에 설명하겠지만 persuade는 3항 구조이고 다음 (8)과 (9)의 예문을 보면 persuade 유형동사와 달리 believe 유형동사와 결합하는 능동부정사 보문과 수동부정사 보문은 동의문이라는 것이다.

- (8) a. I persuaded a specialist to examine John.
 b. ≠I persuaded John to be examined by a specialist.

- (9) a. John believes Bill to have kissed Mary.

b.=John believes Mary to have been kissed by Bill.
-AkmJian and Henry(1975:342)-

(9)의 예문에서 보듯이 부정사 보문 Bill to have kissed Mary와 Mary to have been kissed by Bill은 동사 believes에 의해 지배 받는다. 즉, Kiparsky and Kipary(1979:345)에 의하면 동사 believe의 목적어 NP는 S를 관할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정사 보문의 주어가 인상변형에 의해 believe 동사의 목적어가 된 후, (10)문에서처럼 그 목적어가 수동변형에 의하여 상위문의 주어가 될 수는 있다.

(10) Bill is believed to have kissed Mary by John.

그리고 다음 (11)과 같이 prefer 유형동사처럼 believe 유형동사의 부정사 보문에 허사 there 삽입이 가능하다.

(11) John believed there to be a life after death.

Believe 유형의 동사와 결합하는 부정사 보문의 구문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유형동사와 결합하는 부정사 보문을 be동사 뒤에 두는 의사분열문 변형을 적용한 아래 (12)문은 비문법적이다(Postal, 1974: 132).

(12) a. What I believe is that Mary is intelligent
b. *What I believe is Mary to be intelligent.

위 (12b)문이 비문이 되는 분명한 이유는 유사분열문의 be동사 뒤에 오는 요소가 하나의 구성요소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Bill to be intelligent는 하나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12a)에서 that절은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의사분열문을 적용한 문은 문법적이다.

(13) a. For John to get the job would be preferred by everyone.
b. *For John to be dishonest was believed by us.

-AkmJian and Henry(1975:330)-

또한 believe 유형동사는 for-to부정사 보문이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없다. 위의 여러 구조적 특징을 보아 부정사 보문이 수동문의 주어가 되지 못하거나, 또한 부정사 보문이 what-의사분열문 변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VP의 지배를 받는 S이다. 그러나 believe의 목적어가 재귀대명사가 될 수 있고, 능동 부정사보문과 수동부정사 보문이 동의문이라는 것, 그리고 허사 there을 삽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NP의 속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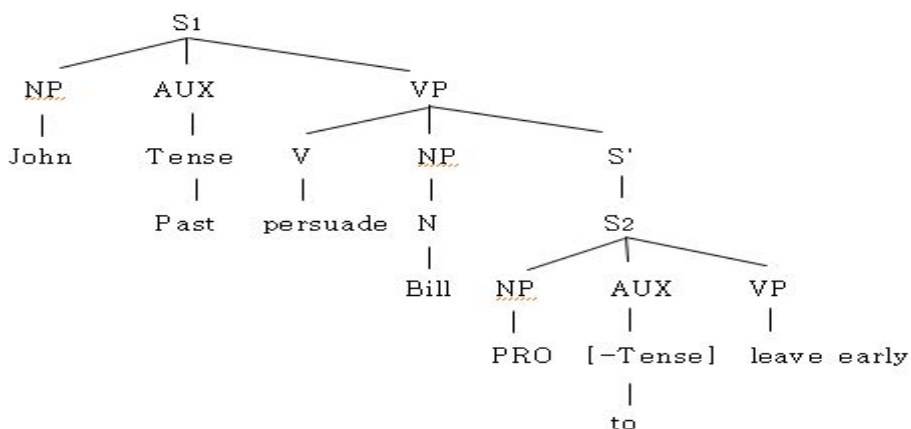
D. Persuade 유형동사

Chomsky(1981)은 아래 (1a)의 기저구조를 (1b)와 같이 설정한다.

- (1) a. John persuaded Bill to leave early.
b. John persuaded Bill [s' [s PRO to leave early]]

(1a)의 기저구조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PRO=Bill)

(2)



(2)에서 Bill은 부정사 보문 내의 요소가 아님을 나타내고 부정사 보문의 주어와 상위문의 목적어와 같은 대상을 지시하므로 to 부정사 앞에 비외현적 주어 PRO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상위문 동사 persuade는 Bill에게 목적격을 부여하지만 PRO는 S'장벽⁷⁾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는 자리에 나타나 격을 부여받지 않기 때문에 격여과 조건⁸⁾에 위반하지 않아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홍순서(1998)에 의하면 persuade 유형 동사로는 force, allow, advise, remind, cause, coax, compel, defy, encourage, urge, order, tempt, trust, warn 등을 들 수 있다.

Persuade 유형 동사와 결합하는 부정사 보문의 구문적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본 prefer 유형의 동사들은 부정사 보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와 지시가 같을 때는 부정사 보문의 주어를 표면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persuade 유형의 동사들은 상위문의 주어와 목적어의 지시가 동일할 때 목적어를 삭제하면 아래 (4a)문과 같이 비문이 된다.

- (3) a. John prefers to leave early.
b. John prefers you to leave early.
- (4) a. *John persuaded to leave early.
b. John persuaded himself to leave early.
c. John persuaded Bill to leave early.

앞에서 prefer는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2항 동사라 했다. 하지만 persuade는 설득하는 사람, 설득 당하는 사람 외에도, 설득하는 내용이

7) 장벽조건 : NP와 S'는 지배에 대한 절대적인 장벽이 된다. 즉, 어떠한 범주도 명사구나 S'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범주를 지배할 수 없다.(Radford,1981: 323)

8) 격여과 조건(Case Filter) : 모든 외현적인 명사구는 격을 갖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NP if NP has phonetic content and has no case.)

있어야하는 세 개의 의미역이 필요한 3항 동사(3-place predicate)이다. 그래서 (4a)는 비문이 된다. 그리고 상위문의 주어와 상위문의 목적어가 동일 지시적이면 동일명사구 삭제가 아니라 상위문의 목적어는 재귀대명사만이 허용된다. 3항 동사의 논항 구조로 보면 다음과 (5c)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 a. * I persuaded him.
- b. * V [NP to VP]
- c. V [NP][to VP]

Prefer와 달리 persuade 유형 동사는 for-to부정사 보문과 결합하면 아래 (7)문과 같이 비문법적이 된다. (7)문이 비문인 것은 you는 상위문의 동사 persuade의 목적어이기 때문이다.

- (6) a. John prefers for you to leave early.
- b. John hates for you to leave early.

- (7) a. *John persuaded for you to leave early..
- b. *John reminded for you to leave early.

-Stockwell et al.(1973:524)-

다음 (8)와 같이 상위문의 동사가 persuade 유형동사일 때 상위문의 동사 목적어 John과 부정사 보문의 주어 Bill과 같이 서로 지시가 같지 않을 때도 비문법적이다.(Rosenbaum, 1967: 95).

- (8) a. *I persuaded John for Bill to leave early.
- b. *I reminded John for Bill to visit his ailing mother.
- c. *We forced John Bill to visit her.

아래 (9a)문과 같이 부정사 보문이 동사 like의 목적어로 herself가 상위문의 주어 Mary와 지시가 동일할 때에도 역시 비문법적이다. 그리고 (9b)문과 같이 목적어 Fred와 부정사 보문의 주어 him이 지시가 동일하

더라도 부정사 보문의 주어가 아래와 같은 표면 구조를 가지면 비문법적이다.

(9) a. *Mary persuaded John to like herself.

b. *John persuaded Fred₁ for him₁ to resign.

-Bonny(1976:89)-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persuade 유형동사와 결합하는 부정사 보문의 주어는 상위문의 목적어와 지시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아래 (10a)문의 기저구조는 (10b)가 된다.

(10) a. Mary persuaded John₂ to like himself₂.

b. Mary persuaded John₂ [s John₂ to like himself₂]

Prefer 유형동사가 for-to 부정사 보문과 결합할 때, for-to 부정사 보문이 수동문의 주어가 되는 것과는 달리 persuade 유형동사와 결합하는 부정사 보문은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persuade 유형동사들은 prefer 유형 동사와 달리,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다.

(11) a. For the manufacturers to make electric devices more eco-friendly is preferred.

b. *For the manufacturers to make electric devices more eco-friendly is persuaded.

(12) a. *The manufacturers were preferred to make electric devices more eco-friendly.

b. The manufacturers were persuaded to make electric devices more eco-friendly.

-고1 능력(찬) 7과-

Persuade 유형동사와 결합하는 부정사 보문을 be동사 뒤에 두는 의사분열문 변형을 적용한 아래 (13)문은 비문법적이다

- (13) a. *What I persuade is for Bill to leave early.
b. What I persuade Bill is for him to leave early.

위 (13a)문에서 for Bill to leave early가 하나의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되는 분명한 이유는 persuade 유형동사는 (13b)처럼 상위문의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다음 (14a)에서 보듯이 prefer 유형동사와 결합하는 부정사 보문의 능동문과 수동문은 동의문이나 (14b)에서 persuade 유형동사와 결합하는 부정사 보문의 능동문과 수동문은 동의문이 아니다. (14b)의 부정사 보문의 능동문에서 설득을 당하는 사람은 her이지만 부정사 보문의 수동문에서는 설득을 당하는 것이 a long-plan으로 대상이 달라지게 된다. Persuade 유형동사의 목적어 her와 a long-term plan은 기저구조의 목적어이자 곧 표면구조의 목적어가 된다.

- (14) a. I prefer [her to make a long-term plan]
=I prefer [a long-term plan to be made by her].

- b. I persuaded [her] [to make a long-term plan].
≠I persuaded [a long plan to be made by her].

-고1 두산(윤) 1과-

아래 (15a)의 prefer 유형동사와 결합하는 부정사 보문에는 there를 삽입할 수 있으나, (15b)에서는 persuade 유형동사에는 there 삽입을 불허한다. Persuade 유형동사 뒤에는 의미역이 할당될 수 있는 요소들로만 채워질 수 있다. 허요소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persuade의 간접목적어 자리에 올 수 없어서 비문이 된다.

- (15) a. John prefers [there to be three of his friends at the party].
b. *John persuaded [there to be three of his friends at the party].

-AkmJian and Henry(1975:327)-

이상과 같은 여러 구문적 특징으로 persuade유형 동사 뒤에 오는 NP는 부정사 보문의 주어와 지시가 동일하며 이 NP는 목적어로 부정사 보문의 주어로부터 인상변형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E. Promise 유형동사

Promise는 Chomsky(198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부정사 보문과 결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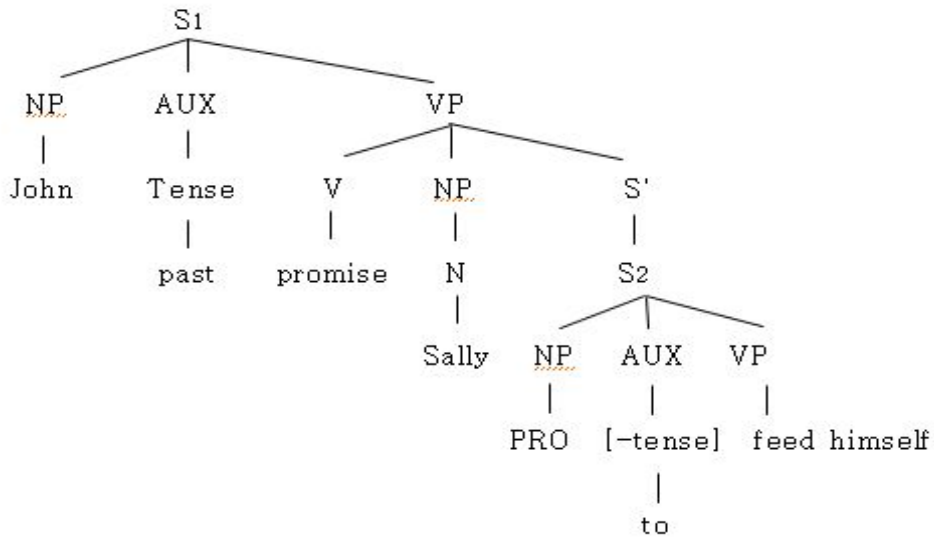
- (1) a. John promised to feed himself.
b. John promised Sally to feed himself.

위 (1a)의 예문처럼 believe는 상위문의 목적어 Sam이 표층구조로 나와도 되고 또는 (1b)처럼 상위문의 목적어가 안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구조는 prefer와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심층구조 볼 수 있다. Chomsky(1981:75)는 (1)문장의 기저구조를 아래 (2)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

- (2) a. John promised [s' [s PRO to feed himself
b. John promised Sally [s' [s PRO to feed himself]

(2b)와 같은 기저 구조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PRO=John)

(3)



위 (3)에서 PRO는 상위문의 주어인 John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Chomsky는 주어통제(subject control)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promise는 try 유형 동사와 같이 부정사 보문의 주어는 반드시 PRO여야하며 이 PRO는 상위문의 주어에 의해 통제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 (4)문을 보면 promise동사가 that-절과 결합할 때는 that-절의 주어는 반드시 상위문의 주어와 공지시적인 것은 아니다.

- (4) a. John promised Bill that he would feed himself.
 b. John₁ promised Bill₂ that he₁ would feed himself.
 c. John₁ promised Bill₂ that he₂ would feed himself.

-Postal(1970:475)-

위 (4a)문을 보면 (4b)나 (4c)와 같은 의미가 다른 두 문장이 나타나는 중의성을 보여준다. 이 문장을 가지고 to부정사 구문으로 나타내면 상위문 동사 promise는 부정사 보문의 기저구조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와 공지시적인 주어통제 동사 이므로 (4c)의 문으로는 to 부정사 구문을 도출할 수 없게 되는 특성이 있다.

Promise와 결합하는 부정사보문의 구조적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한다. Promise는 2항과 3항 동사의 논항 구조를 둘다 취하는 다음 (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 a. V [NP to VP]
b. V [NP][to VP]

Persuade유형 동사와 같이 believe 유형동사도 for-to부정사 보문과 결합하면 아래 (6)문과 같이 비문법적이 된다.

- (6) *John promised for Bill to feed himself.

다음 (87와 같이 상위문의 동사가 believe 유형동사일 때 상위문의 동사 주어 I와 부정사 보문의 주어 Bill과 같이 서로 지시가 같지 않을 때도 비문법적이다.

- (7) *I promised John for Bill to feed himself.

위 (1a)문에 수동변형을 적용하여 부정사보문 to feed himself가 주어로 될 때 아래 (8)문은 비문법적이 된다.

- (8) ? To feed himself promised by John.

그리고, 아래 (9a)문의 부정사 보문에 수동변형을 적용한 (9b)문과 (9a)은 동의문이 아니다. 따라서 목적어 John과 Mary는 기저구조의 목적어이자 표층구조의 목적어가 된다.

- (9) a. I promised John to meet Mary.
b. ≠ I promised Mary to be met by John.

또한 아래 (10a)문의 promise 동사와 결합하는 부정사보문 to see Blue Mountain을 be동사 뒤에 what-의사분열변형을 적용한 아래 (10b)

문 또한 비문법적이다.

- (10) a. John promised Bill to see Blue Mountain.
b. ? What John promised Bill was to see Blue Mountain.

앞에서 말한 대로 부정사보문이 수동문의 주어로 될 수 없거나 부정사보문에 What-의사 분열문 변형이 적용되지 않을 때, 그 부정사보문의 기저구조는 NP가 아니라 VP가 지배하는 S라고 했다. 따라서 위 (5)문과 (7b)문이 비문법적인 것으로 보아 promise 동사와 결합하는 부정사 보문의 기저구조는 아래와 같이 NP가 아니라 VP가 관할하는 S이다. 그래서 Rosenbaum(1967a: 121)은 promise 동사를 부정사보문의 기저구조가 NP인 prefer 유형동사에 포함시킨 것은 모순이라 하겠다.

- (11) a. John promised Mary to leave early.
b. *Mary was promised to leave early by John.
c. *Mary was promised by John to leave early.
d. John₁ promised Mary₂ [s John₁ to leave early]

위 (11a)문을 (11b)와 (11c)문과 같이 수동변형을 적용하면 비문법적이다. Pizzini (1972: 74)에 의하면 (11a)문의 부정사보문의 기저구조를 (11d)로 설정할 때 상위문의 주어 John₁은 부정사보문의 주어 John₁과 공지시적 관계에 있다. 부정사보문 John₁ to leave의 주어 John₁을 넘어 상위문의 주어 John₁을 이동시켜 위 (11b)문이 되도록 수동문을 만들면 공지시적인 관계에 있는 NP를 넘어 이동할 수 없는 교차원리(Cross-Over Principle)를 위반하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8c)문의 상위문의 주어 John₁이 부정사보문 John₁ to leave의 주어 John₁을 넘어 이동을 하지 않았어도 비문법적이기 때문에 교차원리는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Pizzinni (1972: 106)은 위 (8d)문과 같은 기저구조에서 상위문의 주어 John₁과 부정사보문의 주어 John₁은 공지시적이고 상위문의 주어 John₁이 부정사보문의 주어와 자리를 바꾸거나 부정사 보문의 주어로 이동하면 비문법적이 되는 도출제약(derivational constraint)을 설정하여 비문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Jenkins(1972: 109)는 보문의 주어가 by-명사구의 명사구와 공지시적일 때 비문법적인 문이 된다고 규정하고, 이같은 제약을 by-구 제약이라고 설정한다. 그래서 (11a)와 (11b)의 부정사 보문 to leave의 기저구조의 주어 John이 by John의 John과 같으므로 by-구 제약을 위반해서 비문이라고 한다. 이렇듯 언어학자들마다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 (12) a. John promised Sally to feed himself.
b. John₁ promised Sally [s John₁ to feed John₁]

(12a)의 기저구조로서 (12b)의 부정사보문의 주어는 상위문의 목적어 Sally가 아니라 상위문의 주어와 John과 공지시적이다. 따라서 부정사 보문의 주어 John은 부정사보문에서 동사의 목적어 John과 같으므로 목적어 John을 재귀대명사 변형을 한 뒤에 상위문의 주어 John과 부정사 보문의 주어 John이 같으므로 동일명사구 삭제변형에 의해 부정사보문의 주어를 삭제한 결과, 위 (12a) 문이 된다.

그러나 (12a)문과 달리 (13a)문의 부정사보문의 동사의 목적어 herself는 상위문의 목적어 Sally와 공지시적이어서 비문법적이다. Promise 유형동사는 앞서 언급한대로 상위문의 주어와 부정사 보문의 주어가 동일지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 (13) a. *John promised Sally to feed herself.
b. *John promised Sally₁ [s Sally₁ to feed Sally₁]

F. Seem 유형

Seem 유형동사를 분석하기 위해 Chomsky(1981)이론에서는 move-a⁹⁾에 의해 발생하는 흔적을 S-구조에 모두 반영시켜서 D-구조 뿐 아니

9) Move-a : 수정확대표준이론에서는 Move-a라는 하나의 이동규칙으로 통합했다. 또 이 Move-a에 의해 발생하는 흔적을 S구조에 모두 반영시켜서 수정확대표준이론에서는 S구조에 이동에 의해 생기는 흔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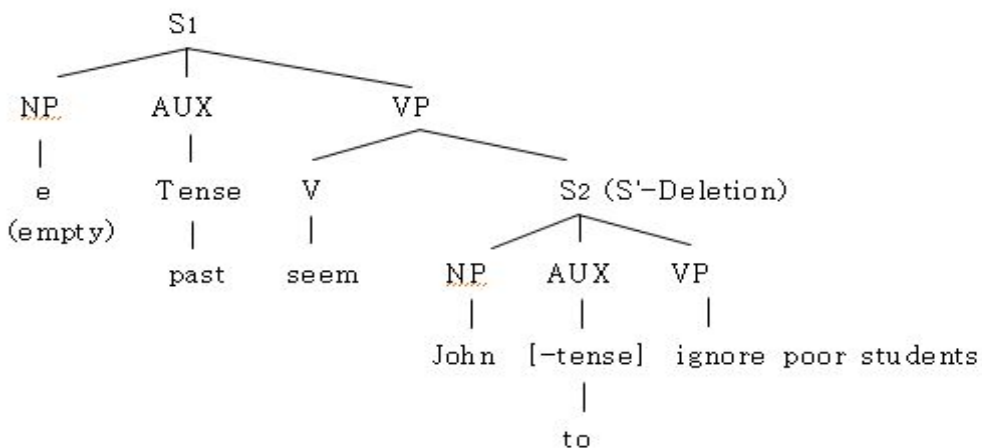
라 S-구조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S-구조만으로 의미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move-a에는 명사구 이동과 wh-이동이 있다. 위에서 적용한 주어-주어 상승규칙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GB에서는 NP-movement로 수정된다. 마찬가지로 “주어-목적어 상승”도 GB에서는 “예외적 격표시(ECM)”으로 분석됨을 알 수 있다. Seem 유형동사에 NP이동을 적용해 보자.

Chomsky(1981)은 아래 (1a)의 기저구조를 (1b)와 같이 설정한다.

- (1) a. John seemed to ignore poor students.
 b. [NP e] past seem [s' [s John to ignore poor students].
 c. [John] past seem [s t to ignore poor students].

(1b)문과 같은 기저구조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도입함으로써 의미해석이 D-구조 뿐만아니라 S-구조에도 적용되었다. 이 Move-a에는 명사구 이동과 wh-이동이 있다. 주어-주어 상승규칙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GB에서는 NP-movement로 수정된다. 마찬가지로 주어-목적어 상승도 GB는 예외적 격표시로 분석된다.

(2)의 수형도에서 NP이동 규칙을 적용하려면 John은 seem 동사로부터 주격을 받기 위하여 NP-이동을 해야 하는데 최대투영인 S'에 의하여 이동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seem 동사에 S' 삭제규칙을 적용하여 논항위치인 공범주¹⁰⁾ 주어자리로 이동하여 주격을 부여받게 된다. NP가 이동한 후 그 자리는 (1c)와 같이 흔적 t¹¹⁾를 남기는데, 이는 각 층위에 통사적 자질을 유지해야하는 투영원리¹²⁾를 준수하게 된다. 만일 John이 이동하지 않으면 아래 (3)문이 된다. 즉 빈 주어자리는 허사 it을 통해서 의미역이 없는 형식적 주어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John은 [s John to ignore student]의절에서 to가 [-Tense]이므로 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S'가 탈락하여 S구조를 가지지만, seem이 자동사여서 격부여를 John에게 하지 못한다. 따라서 John은 격을 받지 못하고 격여과에 의해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3) *It seems John to ignore poor students.

- (4) a. np seemed [that John ignored poor students]
 b. It seemed that John ignored poor students.
 c. *John seems that t ignored poor students.

그러나 (4)에서처럼 seem 뒤에 시제절이 오면 (4a)의 D-구조에서 허

10) 공범주(empty category) :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지만 문법적 자질을 갖는 통사범주를 말한다.

11) 흔적이론 : 명사구는 이동하면 그 자리에 t 라는 흔적(trace)을 남긴다. Move-a에 의해 발생하는 흔적을 S-구조에 모두 반영시키는 것이 흔적이론이다.

12) 이를 확대 투사의 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라 한다. 즉, 모든 절은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어자리가 의미역 위치일 때는 물론, 비의미역 위치인 절의 경우에도 반드시 주어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S-구조와 논리형식에만 적용된다.

사 it을 써주면 정문이 된다. 그러나 (4a)에서 명사구 이동을 하면 오히려 비문이 된다. 그러므로 인상 서술어가 가진 부정사 보문에서는 명사구 이동은 의무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4c)에서는 이동된 명사구 t는 ignore로부터 주격을 부여 받아 명사구 흔적 조건¹³⁾을 위반하여 비문법적이 된다.

홍순서(1998)에 따르면 seem 유형에 속하는 동사를 알아보면 appear, happen, be likely, be certain, turn out등이 있다. 이 유형 동사들이 유도하는 내포문 구조의 특징은 다음 (5)과 같다.

- (5) a. John seemed to ignore poor students.
b. It seemed that John ignored poor students,
c. *For John to ignore poor students seemed.
d. * It seemed for John to ignore poor students.

(5a)와 (5b)문을 보면, seem 유형의 동사는 to와 that절을 취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c)에서 보는 바와 같이 seem은 S구조를 취하므로 보문소 for-to 부정사 구조가 주어가 되거나, 또한 (5d)처럼 It-for-to 구조로 쓰이면 비문이 된다.

- (6) a. *What John seemed was to swim underwater.
b. *To swim underwater would be seemed by few of us.
-AkmJian and Henry(1975:340)-

(6a)에서 보듯이 seem 유형동사는 의사 분열문을 형성하지 못하며, (6b)처럼 to부정사 보문에 수동 규칙이 적용된 문장은 비문법적이 된다. 그리고 seem 유형의 동사가 주어에 역할을 부여하지 못하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또한 아래 (7a)와 같은 수동문장이 가능하고 부정사 구문의 주어가 상

13) 명사구 흔적 조건(NP-Trace Condition)

The trace of an NP movement cannot be case-marked
(Chomsky, 1980c:17).

위문의 주어로 인상됨을 말해주는 것은 (7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문의 주어 자리에 there 삽입이 가능하다.

- (7) a. Poor students seemed to be ignored by John.
 b. It seemed that there was another storm in March.
 c. There happened to be another storm in March.

-Bresnan(1972:127)-

G. Tough 구문

동사가 그들의 보충어로 전치사구, 부정사구, that절을 가질 수 있듯이 서술적 기능을 갖는 형용사도 이와 같은 종류의 보충어 즉, 보문 구조를 취할 수 있다. 형용사가 to 부정사를 취하는 Tough 구문의 경우, 부정사 보문의 목적어가 상위문의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구조를 갖는다.

Rosenbaum(1967:105-108)은 영어에서 difficult나 easy와 같은 형용사는 보문절의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를 이동시키는 서술어들로서 주어 인상(subject-raising)과는 다른 변형 공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1) a. [for John to hit Bill] is difficult .
 b. it is difficult [for John to hit Bill].
 c. Bill is difficult for John to hit.

먼저 (1a)에 외치변형(Extraposition)을 적용하면 (1b)가 되고 다시 it을 Bill로 대치시키면 (1c)가 도출된다. 학교 문법에서 아래 (1b)문의 경우는 it을 가주어, for John을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to hit Bill을 진주어로 설명하고 (1b)의 경우 to 부정사가 문장의 주어로 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John이 주어로 나가는 경우는 비문법이지만 자세한 통사적 분석이 미흡하다. 변형생성문법에서는 tough구문에 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Rosenbaum(1976)은 (2)문을 보면 'erasing NP' 제거 변형이 따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주절에 속하는 'for(of) NP'를

'erasing NP'라고 하고, 보문절에 속하는 'for NP'를 'erased NP'라고 한다. 'erasing NP' 제거변형은 선택적이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 a. [for John to leave early] was wise of John.
- b. it was wise of John [for John to leave early].
- c. it was wise of John to leave early.
- d. it was wise for John to leave early.

(2a)를 외치변형시킨 (2b)에서 보문절의 주어 for John(erased NP)을 제거하면 (2c)가 되고, 주절의 of John(erasing NP)을 제거하면 (2d)가 도출된다. 이와같은 'erasing NP' 제거현상은 easy, difficult와 같은 서술어(Tough Predicates)에 부정사 보문절이 연결된 Tough 구문(Tough Constructions)에도 나타난다.

- (3) a. [for John to pass the exam] was difficult for John.
- b. it was difficult for John [for John to pass the exam].
- c. [for John to pass the exam] was difficult.
- d. [to pass the exam] was difficult for John.
- e. It was difficult for John to pass the exam.

심층구조 (3a)를 외치변형시키면 (3b)가 되고, (3a)에서 주절의 for John을 제거하면 (3c)가 되며, 보문절의 for John을 제거하면 (3d)가 도출된다. 따라서 (3e)는 심층구조가 (3c)인지 (3d)인지 분명하지 않게 되므로 (3e)의 심층구조를 (3a)와 같다고 가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는 다음 (4)와 같은 예문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는데 for NP가 주절과 보문절에 각각 따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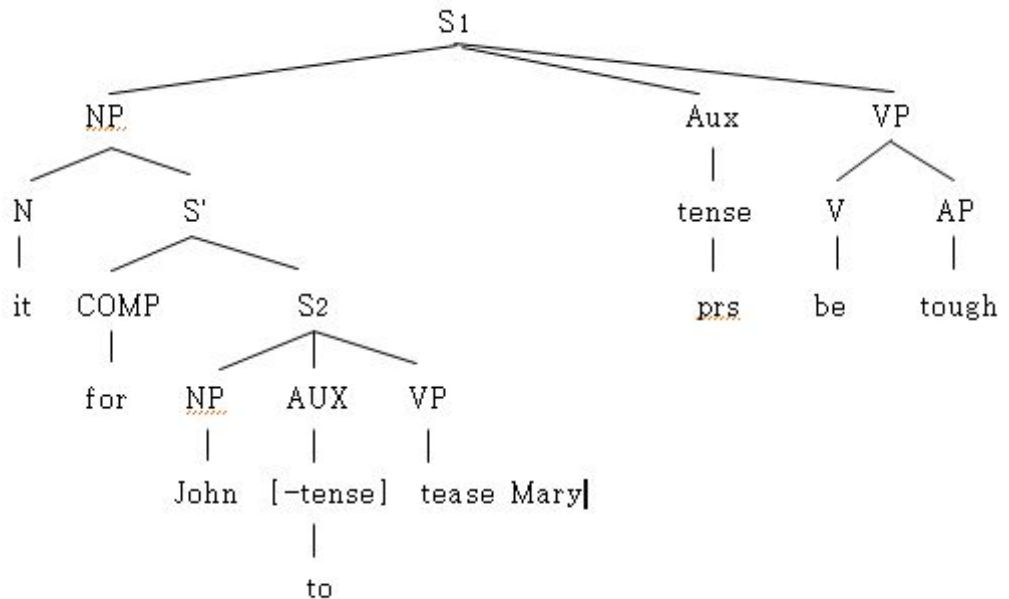
- (4) a. It is a waste of time for us [for them to teach us Latin].
- b. It is pleasant for the rich [for the poor to do the hard work].

Postal(1971:27-31)은 다음과 같은 심층구조 (5a)에서 (5b)로 외치변형시킨 후 보문절의 목적어를 상위절의 주어로 이동시켜 (5c)를 도출하는 변형을 ‘Tough Movement’¹⁴⁾라고 하였다.

- (5) a. [NP it [s for John to tease Mary]] is tough.
 b. It is tough for John to tease Mary.
 c. Mary is tough for John to tease.

(5a)를 수형도로 보면 다음 (6)과 같다.

(6)



그리고 tough movement에 의하여 생성되는 구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아래 (7)처럼 보문절 술부에 들어 있는 nonsubject NP라고 해서

14) Tough-movement : 하위절의 목적어가 상위절의 주어로 변하는 목적어-주어 상승변형(object-to-subject raising)으로 설명이 되는 이 변형을 tough-이동 이라 한다(Postal, 1971).

모두 Tough 이동 변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7) a. Mary is tough for Bill to visit.
 b. ?Mary is tough for Bill to take a picture of.
 c. ?Mary is tough for Jack to get distinguished with.
 d. *Mary is tough for John to give the book.
 e. Mary is tough for John to give the book to.
 f. *The handsome doctor was tough for Mary to become well known to.
 (?은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문장임을 나타낸다.)

Tough Movement는 명사의 한정성(definiteness)과 관계가 있다.

- (8) a. It is tough for him to drive the car slowly.
 b. The car is tough for him to drive slowly.
 (9) a. It is tough for him to drive a car slowly.
 b. *A car is tough for him to drive slowly.

즉 (8)에서는 the car가 definite noun으로서 Tough Movement를 허용하나 (9)에서는 a car가 indefinite noun으로서 문두로 이동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또한 Tough 구문은 중의성(ambiguity)이 있으므로 다음 (10a)는 (10b)와 (10c)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 (10) a. It was tough for Tony to rob the store.
 b. It was tough for Tony (to rob the store).
 c. It was tough (for Tony to rob the store).

Tough 구문의 술어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과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 (11) a. It was easy to find something.

b. *It was easy to find anything.

(12) a. *It was difficult to find something.

b. It was difficult to find anything.

재귀대명사는 수동변형이 되지 않듯이 Tough 구문에서도 재귀대명사는 이동되지 않는다.

(13) a. He killed himself.

b. *Himself was killed by him.

c. *He was killed by himself.

(by himself가 alone의 의미일 경우는 문법적이나 뜻이 다르다.)

(14) a. It was difficult for me to shave himself.

b. *Myself was difficult for me to shave.

c. *I was difficult for myself to shave.

그리고 Tough구문은 보문절의 목적어를 선택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It is easy to please John과 John is easy to please를 모두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 Tough Movement 가설의 장점이다. 그러나 Mary is pretty to look at을 도출하려면 It is pretty to look at Mary에서 보문절의 목적어를 의무적으로 인상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므로 일반 형용사 보문절의 경우에는 부자연스러워진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에 대한 ‘speaker의 좋거나 싫은 감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서술어 (beautiful, delicious, tasty, graceful...)는 보문절의 목적어를 의무적으로 제거한다. 그래서 보문절의 주어(for NP)를 갖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보문절의 주어가 나타나면 다음 (15)처럼 부자연스럽다.

(15) a. ?Mary is pretty for John to look at.

b. ?This music is melodious for Max to listen to.

(15)의 예문들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문장의 주어에 대한 평가가 보문절

주어의 것이 아니고 speaker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표면구조가 같아 보이는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하여 보자.

(16) a. John is eager to please.

b. John is easy to please.

위 (16a)는 다음 (17a)를 심층구조로 하여 Subject Raising 된 것이 아니라 (17b)를 심층구조로 하여 동일명사구 제거변형이 적용된 것이다.

(17) a. *It is eager [for John to please (someone)]

b. John is eager [for John to please (someone)]

그러나 (17b)의 심층구조는 다음 (18a)와 (18b)의 두 가지로 가정할 수 있다.

(18) a. It is easy [(for someone) to please John]

b. John is easy [(for someone) to please John]

(18a)을 심층구조로 가정하면 보문절의 목적어 John을 상위절의 주어로 이동시켜 (16b)를 도출하여야 하며, (18b)를 심층구조로 가정하면 상위절의 주어와 동일한 보문절의 목적어를 제거시켜 (16b)를 도출하여야 한다.

또한 Chomsky(1970)는 이 두 문장의 차이는 (16a)는 그 자체가 가능한 심층구조이므로 (19a)가 될 수 있지만 (16b)는 어떤 유도과정을 거쳐서 된 문장이므로 그 자체가 심층구조가 아니므로 (19b)는 비문이라고 한다.

(19) a. John's eagerness to please.

b. *John's easiness to please.

이어서 Chomsky(1977)은 tough 구문을 그의 흔적이론을 이용하여 보문의 목적어가 특정한 wh-구를 COMP 위치로 이동한 뒤 모문의 주어와

이동된 wh-구는 술어규칙에 의해 동지시 관계를 갖게 된다는 wh-이동으로 분석했다. (20a)의 심층구조를 (20b)와 같이 보고 X는 John이고 Y에 wh-이동이 적용되어서 (20c)와 같은 구조가 된다고 본다.

- (20) a. John is easy (for us) [to please]
 b. X is easy (for us) [S' for PRO to please Y]
 c. John is easy (for us) [S' [who for] PRO to please t]

(20c)에서 wh-이동은 내부순환에 적용되고, wh-구가 의무적으로 삭제되고 의미해석이 들어가 부정사 보문은 John에 관한 것이라는 관계를 규정함과 동시에 흔적 *t*와 John의 관계를 결정한다. 그런 다음 *t*를 제거하면 (21a)와 같은 문장이 된다.

그러나 다음 예문을 보면 이러한 분석의 문제점이 생긴다.

- (21) a. John is tough to live with.
 b. *John is tough [S' for PRO to live with who(m)].
 c. John is tough [S' who for PRO to live with t].
 d. John is tough [S' with who for PRO to live with].

Chomsky(1977)에 의하면 (21a)문의 기저구조인 (21b)에서 wh-이동 규칙을 적용하면 (21c) 또는 (21d)가 생긴다. 다음으로 wh-구 삭제 규칙은 (21c)에서 who를 삭제시킬 수 있지만 (21d)에서 삭제시킬 수 없으므로 (22)과 같은 비문이 된다.

- (22) *John is tough with whom to live.

Tough 구문을 wh-이동으로 분석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Chomsky (1981)는 지배결속 이론을 도입하여 특정한 wh-구인 영요소 PRO가 COMP 위치로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또한 모문 주어와 wh-구를 연결시켜주는 의미해석과 같은 술어규칙대신에 PRO가 COMP 위치로 옮겨간 흔적이 모문의 주어와 동일하지 되는 관계를 적용한다.

- (23) a. John is easy to please.
 b. John is [AP easy [S' COMP [S PRO to please PRO]]]
 c. John is [AP easy [S' PRO_i [S PRO to please *t_i*]]
 d. It is easy to please John.

(23a)문이 되기 위해 (23b)를 거쳐 (23c)와 같은 구조를 설정하고 COMP에 있는 PRO_i는 *t_i*의 선행사이며, please의 주어 PRO는 임의적 지시를 나타낸다. 그러나 (23c)는 John과 *t_i*의 관계를 나타내지 못한다. (23a)를 설명하기 위해 easy가 모문주어에 의미역을 부여한다고 가정해야 하지만 (23d)에서처럼 easy가 주어에 의미역을 부여하지 못하므로 모순이 나타난다. 그래서 모문의 주어와 보문내의 *t_i*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형용사-보문구가 복합형용사 easy-to-please로 재분석하였지만 이것 또한 타당한 설명이 되기엔 부족하다. Tough 구문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어 꾸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II.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의 to 부정사

지금까지 to 부정사 보문을 분석하여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동사 유형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학교 영어 교과서에서의 to 부정사 분포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통 문법을 다루는 학교 문법은 to-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분석하여 to-부정사의 기능을 품사를 기준으로 명사적(1a), 형용사적(1b), 부사적의 용법(1c)로 나누었다. 명사적 부정사는 주어(subject), 보어(complement, predicate), 목적어(object) 기능을, 형용사적 부정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attributive)용법과 서술적(predicative)용법의 기능을, 부사적 기능의 부정사는 부사적 기능을 한다.

(1) a. She learned to walk on prosthetics.

-고1 YBM(신) 4과-

b. Bananas will be available for future generations to enjoy.

-고1 YBM(신) 5과-

c. I also noticed people came out to buy street foods.

-고1 YBM(신) 7과-

이러한 학교 문법의 to 부정사와 II장에서 분석한 prefer, try, believe, try, promise, seem의 6가지 동사 유형하고 tough 구문의 유형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부정사 구문의 사용 빈도수를 알아보았다. 10종에 가까운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가 있지만 그 중에 2013년 출판한 5종 교과서인 능률(찬), 천재(이), 천재(김), YBM(신), 두산(김)을 채택하여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본문(듣기 및 말하기 제외)만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To부정사의 여러 기능이 있지만 to부정사 보문에 해당하는 명사적 기능의 목적어, 보어의 역할로 한정하여 학교 문법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밝히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II장에서 분석한 to 부정사 보문은 어떻게 원리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영어 교육자로서 영어 학습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대안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 분포

1. To 부정사 사용 구문

학교문법의 부정사 기능에 의한 분석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1학년 5종 교과서를 토대로 듣기 및 말하기 지문을 제외한 읽기 본문만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그 사용 빈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1> 고등 교과서에서 to 부정사 사용 빈도 수

빈도		능력 (찬)	천재 (이)	천재 (김)	YBM (신)	두산 (김)	합 계	비 율 (%)
명 사 적 기 능	주 어	10	8	1	6	13	38	13.0
	목적어	41	49	28	21	43	182	62.5
	보 어	19	17	12	12	11	71	24.4
	계	70	74	41	39	67	291	55.0
형 용 사 적 기 능	주 어, 목 적어수식	3	6	3	1	2	15	18.1
	동격관계	20	12	4	11	16	63	75.9
	서술용법	0	0	1	2	2	5	6.0
	계	23	18	8	14	20	83	15.7
부 사 적 기 능	동사수식	20	28	10	19	24	101	65.1
	형용사 수 식	10	14	6	12	5	47	30.3
	부사수식	1	5	1	0	0	7	4.5
	계	31	47	17	31	29	155	29.3
총 계		124	139	66	84	116	529	10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사 구문은 각 교과서별로 66~139개의 구문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거의 각 본문에 걸쳐 부정사에 대한 문법사항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부정사에 대한 문법성 판단 문제도 다루어지고 무엇보다도 독해를 하는데 있어서 부정사의 의미 파악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1>을 보면 학교문법으로 설명되는 부정사의 3가지 기능에서 명사적 기능(55.0%)이 사용 빈도가 가장 많으며 그 중에서도 목적어의 역할로 쓰인 기능(62.5%)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부정사 보문의 구문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반대로 부정사의 형용사적 기능에서 서술용법(6.0%)과 부사적 기능에서 부사 수식(4.5)은 사용 빈도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 하지만 ‘be+to 부정사’의 형태로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의 뜻으로 형용사적 기능으로서 서술용법과 too~to 부정사, enough to 부정사와 so~ as to 부정사 등의 부사나 형용사수식이 학생들에게는 더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정사의 전반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2. To 부정사 보문사용 구문

학교문법에서는 명사적 기능에 해당하는 to 부정사 보문을 동사분류에 의한 6가지 유형과 tough 구문을 추가하여 사용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표1>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 5종 교과서를 토대로 듣기 및 말하기 지문을 제외한 읽기 본문만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그 사용 빈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2> 고등 교과서에서 to부정사 보문사용 빈도수

빈도 유형	능률(찬)	천재(이)	천재(김)	YBM(신)	두산(김)	합 계	비율(%)
Prefer	14	20	15	8	14	71	32.0
Try	14	17	6	5	14	56	25.2
Believe	0	0	1	1	0	2	0.9
Persuade	7	7	7	5	7	33	14.9
Promise	0	1	0	0	0	1	0.4
Seem	3	8	7	4	3	25	11.3
Tough구문	10	5	2	4	13	34	15.3
합 계	48	58	38	27	54	222	100%

위의 표를 보면 prefer 유형동사가 사용 빈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try 유형, tough 구문, persuade 유형, seem 유형, believe 유형, promise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Believe 유형동사는 교과서에 자주 나오기는 했으나 주로 정형절로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에서 보듯이 명사적 기능의 동사의 목적어와 보어로 쓰이는 부정사 유형의 빈도수가 많은 것을 보면 부정사의 보문유형이 부정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고 더불어 그 구문의 특성에 대한 학생들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B. 교과서 분석의 문제점

II장에서는 to 부정사 보문을 동사 유형별로 그리고 tough구문으로 한정하여 Chomsky(1981)의 지배-결속이론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 보았다. 그러나 학교문법에서는 이러한 동사가 들어가는 문장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고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더불어 II장에서의 분석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 고등학교 1학년 학교 교과서의 예문들을 사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to 부정사의 보문만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첫째, 학교 문법에서 설명하는 3형식의 to 부정사 보문을 직접 목적어로 보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근거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a. I wanted to bring something.

-능률(찬) 3과-

b. Many art historians tried to find out when this picture was drawn.

-천재(이) 5과-

위의 (1a)의 문장을 학교 문법에서는 주어(I), 동사(wanted), 목적어(to bring something)으로 이루어진 3형식이라고 설명한다. (1b)도 마찬가지로이다. 하지만 이러한 to 부정사를 직접목적어로 본다면 문제점이 있다.

(2) a. *To bring something was wanted by me.

b. *To find out when this picture was drawn was tried by many art historian.

Want나 try가 타동사로 to 부정사가 직접 목적어가 된다면 수동태가 가능해야 하지만 (2)문이 비문인 것을 보면 위의 문장에서 쓰인 to 부정사가 목적어라는 설명은 타당성이 약해진다. 위의 (2a)를 의문문으로 바꾸어 다른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다.

(3) A: Did you want to bring something?

B: *Yes, I wanted it.

(3)의 예문에서 대명사로 쓰이는 it이 동사 다음에 오는 to 부정사를 대신할 없는 경우를 보면 그 to 부정사는 직접목적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to 부정사가 직접목적어라면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분열 구문(cleft constructions)에서 강조 위치에 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음 (4)의 예문을 보면 분열 구문의 강조 위치에 올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직접 목적어가 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4) *It was to bring something that I wanted.

위에서 말한 이러한 근거로 to부정사 보문은 목적어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1)에 있는 문장의 기저구조인 (5)와 (6)문을 보면 to 부정사 보문이 상위문 주어를 받는 PRO라는 외현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어의 서술어가 된다.

(5) a. I wanted to bring something.

b. I wanted [s' PRO to bring something].

(6) a. Many art historians tried to find out when this picture was drawn.

b. Many art historians tried [s' [s PRO to find out when this picture was drawn.

학교문법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구로 나누어 문장의 형태에 따라 나누었지만 목적어와 보어의 구분을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

고 실제로 그 구별이 모호할 때가 많다. 또한 부사구를 문장성분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아 부사구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문장들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변형생성문법에서는 보충어(complements)와 부가어(adjunct)로 나누어 좀 더 간단하면서도 의미적으로나 통사적으로 확실한 설명을 제시한다. 변형생성문법에서 모든 필수적인 문장성분은 보충어가 되고 부가적으로 들어간 문장은 부가어인 것이다. 그리고 to 부정사를 문장에서 보충어의 한 성분으로 직접 목적어가 아닌 보어로 본다.

둘째, 상위문에 목적어와 to 부정사를 갖는 문장을 학교 문법에서는 4형식이나 5형식으로 같은 문형으로 분류하여 동사 유형의 각각의 다른 특성들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7) a. I wanted my own mother to be treated.

-능률(찬) 1과-

b. The school authorities believed him to be intelligent.

-능률(찬) 5과-

위의 (7)의 예문을 보면 학교문법에서는 주어(I), 동사(would want), 목적어(my own mother), 목적격 보어(to be treated)로 이루어진 5형식으로 본다. (7b)도 마찬가지로 5형식으로 설명하면서 (7a)와 (7b)의 문장을 통사적으로 같은 문장들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만으로는 다음에 오는 동사의 통사적인 특성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없다. 위의 (7)의 교과서 예문을 활용하여 prefer 유형에 속하는 want 동사와 believe 동사의 차이점을 말해 보겠다. 먼저 다음 (8)과 같은 심층구조의 차이를 알 수 있다.

(8) a. I wanted [s' for [s my own mother to be treated]].

b. The school authorities believed [s him to be intelligent].

위와 같이 want는 for 보문소를 가지고 있고 believe는 S' 탈락으로 S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심층구조의 차이가 여러 가지 다른 통사적

속성을 갖게 한다.

- (9) a. For my own mother to be treated was wanted by me.
 b. *Him to be intelligent was believed by the school authorities
 c. He was believed to be intelligent by the school authorities.

위 (9a)처럼 want는 for-to 구문이 수동문장이 가능하지만 (9b)처럼 believe는 가능하지 않고 다만 believe의 격을 받는 him이 상위문 주어로 가능하다.

- (10) a. I wanted very much for my own mother to be treated.
 b. What I wanted was for my own mother to be treated.
 c. *I wanted that my mother was treated.

- (11) a. *The school authorities believed (very much) for him to be intelligent.
 b. *What the school authorities believed was him to be intelligent.
 c. What the school authorities believed was that he was intelligent.
 d. The school authorities believed that he was intelligent.

II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want 동사가 for-to 구문을 취하는 것이 수의적이기는 하나 (10a)과 같은 부사구 삽입을 할 경우 for-to 구문을 취한다. 하지만 (11a)를 보면 believe 동사는 for-to 구문을 쓰면 비문이 된다. 또한 (10b)와 (11c)처럼 의사분열문을 취할 때 want동사는 for-to 구문을 써야 되고 believe 동사는 that절을 써야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 (12) a. John believed himself to be intelligent.
 b. *John wanted himself to be intelligent.
 c. John wanted to be intelligent.

(12)의 예문은 형태상으로나 의미상으로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12a)문의 believe동사는 재귀대명사를 목적어로 쓸 수 있지만 want 동사는 재귀대명사를 목적어로 쓸 수 없으며 (12c)처럼 to 부정사 보문의 주어와 모문동사 주어와 같을 경우는 생략하여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persuade 동사 유형과 promise 동사 유형을 살펴보겠다. 학교 문법에서는 4형식으로 같은 문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유형임을 보여 준다.

(13) a. Sodako's brother visits her with her school work and promises to hang all her cranes from the ceiling.

-천재(이) 8과-

위의 (13)의 교과서 문장을 편의상 다음 (14)의 문장으로 바꾸어 설명하겠다.

- (14) a. He persuades Sally to hang all her cranes.
b. He promises Sally to hang all her cranes.

학교문법으로 (14a)를 설명하자면 주어(He), 동사(persuades), 간접목적어(Sally), 직접목적어(to hang all her cranes)로 이루어진 4형식으로 본다. 물론 (14b)도 같은 4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른 문법 교재에서는 (14)의 문형을 5형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도 하다. 4형식이든 5형식이든 (14)의 예문들을 같은 유형의 동사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 (15) a. Sally is persuaded to hang all her cranes.
b. *Sally is promised to hang all her cranes.

(14)의 문장들을 같은 형태로 (15)과 같은 수동문을 만들었지만 (15a)는 문법적이지만 (15b)는 비문법적이다. (15a)는 설득당하는 사람도 Sally이고 학을 매달아 놓아야 하는 사람도 Sally이지만 (15b)는 약속 받

는 사람은 Sally이지만 학을 매달아 놓아야 하는 사람은 Sally가 아니라 He이다. 그러므로 Promise는 수동문으로 될 수가 없다.

- (16) a. John persuaded Sally to feed herself.
b. *John promised Sally to feed herself.
c. John promised Sally to feed himself.

(16)의 예문도 같은 구문의 형태로 바꾸어 보았지만 (16a)는 문법적이고 (16b)는 비문이다. (16a)의 to 부정사 보문의 주어는 Sally이고 (16b)의 to 부정사 주어는 John이므로 (16c)에서처럼 himself로 바꾸면 정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 차이가 통사적인 차이를 만들고 또한 통사적인 차이가 있으면 같은 유형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 II장의 분석을 참고로 위 (14)의 기저구조는 다음과 같다.

- (17) a. He persuades Sally [S' [s PRO to hang all her cranes]].
b. He promises Sally [S' [s PRO to hang all her cranes]].

(17a)에서 PRO는 Sally이고 persuade 유형동사는 PRO가 문장의 목적어와 같아야하는 목적어 통제동사이고 (17b)에서 PRO는 He이고 promise 유형동사는 PRO가 문장의 주어와 같아야하는 주어 통제동사이다.

셋째, seem 동사의 경우를 보면 같은 의미를 갖는 문장을 형태만으로 다른 문형으로 분류하고 표면상의 주어, 목적어와 의미상의 내면적 주어, 목적어가 다른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 (18) a. It seemed that they were alive.
b. They seemed to be alive.

-천재(이) 8과-

위의 (18)의 예문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18a)는 가주어(it), 동사(seemed), 진주어(they were alive)로 이루어진 1형식

으로 보고 (18b)는 주어(They), 동사(seemed), 보어(to be alive)로 이루어진 2형식으로 서로 다른 문형으로 본다. 하지만 (18b)의 문제점은 표면상의 동사 seem의 주어인 They는 to 부정사인 to be alive의 주어이지 seem 동사의 실질적인 즉 의미상의 주어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seem의 의미상 주어는 They가 아니라 They were alive 인 것이다. 즉, seem 유형동사는 주어만을 취하는 1항동사이다. 그래서 (18a)와 (18b)는 의미적으로 같고 통사적으로도 같은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seem 동사의 주어는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같은 주어와 동사를 가진 의미적으로도 동일하고 통사적으로도 같은 구조로 보아야한다.

심층구조를 보면 (19a)와 (20b)은 같은 구조로 본다. 심층구조를 통해 표면상의 주어와 내면적인 주어가 다름을 인식하게 되고 좀 더 정확한 의미와 통사적인 구조 이해에 도움을 준다.

- (19) a. They seemed to be alive.
b. [np e] seemed [s' [s They to be alive].
c. [They] seemed [s t to be alive].

- (20) a. It seemed that they were alive.
b. [np e] seemed [that they were alive].

Seem 유형의 동사는 이와 같이 부정사 구문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 자리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19b)에서 they는 S'에 의해 격을 받을 수 없어 seem 동사로부터 격을 받기 위해 S'삭제 규칙을 적용하여 공범주 자리(empty category)인 e 자리로 이동을 한다(NP이동). 그리고 (19c)처럼 they가 주격을 부여받고 주어자리로 이동한 후 흔적 t를 남기게 된다.

넷째, 학교문법으로는 tough 구문과 형태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다른 유형의 구문을 구별하지도 못하거나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어도 타당성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 (21) a. He is easy to please

b. It is easy to please him.

(22) a. The house is expensive to buy.

b. *It is expensive to buy the house.

학교문법에서 (21a)의 분석은 He(주어), 동사(is), 주격보어(easy), 부사구(to please)로 이루어진 2형식으로 분류한다. (22a)도 같은 형태로 분석하여 2형식으로 본다. 그러나 (21a)에서 to please가 부사구라면 "He is easy."라는 문장이 올바른 문장이 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쓰면 의미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어 비문이다. 반대로 (22a)에서 to buy라는 부사구를 생략해도 "The house is expensive."라는 문장은 의미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된다. 이러한 차이는 II장의 tough구문에서 언급한 "John is eager to please."와 "John is easy to please."라는 문장들도 같은 형태로 보일 뿐 통사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진다고 설명한 것과 같은 문제점이 된다.

(23) a. It is difficult for me to learn English.

b. *I am difficult to learn English.

c. Tom is easy to please.

능률 교육의 문법교재인 'Grammar Zone'에서 (23)와 같은 예문을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3a)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It is + 형용사 + to + 동사' 구조를 가진 가주어와 진주어 구문으로 다루고 있다. 형용사 영역에서는 사람을 주어로 쓰지 않는 형용사로 easy, difficult, hard, tough, dangerous, convenient, possible, useless 등이 있고 (23b)와 같은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23c)와 같이 의미상의 주어 다음에 이어지는 to 부정사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사람이라면 문장의 전체 주어 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문제점은 to 부정사의 목적어인 this book이 사람이 아닐 경우 다음 (24)의 문장을 타당성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24) a. It is difficult for me to read this book.

b. This book is difficult for me to read.

세듀 출판사의 문법교재인 ‘천일문’에서는 (24a)의 예문을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유의해야 할 to 부정사의 형용사 수식 구문에서 (im)possible, dangerous, easy, hard, difficult, (in)convenient, (un)important, natural, (un)necessary 등의 형용사는 ‘It is + 형용사 + for + 사람 + to + 동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고 이때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문장 전체의 주어 자리로 (24b)처럼 이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또 다른 문제점은 이러한 형용사들이 모두 같은 통사적인 구조를 갖고있다면 아래 (25)의 예문이 비문법적일 리가 없는 것이다.

(25) *The book is possible to read within a week.

(25)의 possible유형의 형용사 구문은 to부정사의 주어나 목적어가 상위문의 주어 자리로 상승하지 않은 술어이다. 현대 영문법에서는 위와 형용사를 likely-구문, tough-구문, necessary-구문, 그리고 probable-구문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의미에 따른 통사적 특성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tough-구문만을 연구하여 다른 형용사구문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겠다.

Tough 구문만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심층구조 (26a)에서 (26b)로 위치 변형시킨 후 보문절의 목적어를 상위절의 주어로 이동시켜 (26c)를 도출하게 된다.

- (24) a. [NP it [s for me to read this book]] is difficult.
b. It is difficult for me to read this book.
c. This book is difficult for me to read.

그래서 다음 (27)의 문장에 대해 학교문법의 설명에서 이러한 형용사류는 사람이 주어로 올 수 없다는 말은 틀리고 이런 틀린 설명이 나오는 이유는 원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형태만 보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심층구조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에 원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 (27) a. It is easy to please John.
 b. John is easy to please

- (28) a. [NP it [s for someone to please John]] is easy.
 b. It is easy for someone to please John.
 c. John is easy to please.

이러한 심층구조의 분석으로 2장에서 설명한 대로 NP-movement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들로 다른 구조임을 설명해 줄 수 있다.

- (29) a. John is eager to please.
 b. John is easy to please.
- (30) a. John is eager [for John to please (someone)]
 b. It is easy [(for someone) to please John]

다음과 같이 현대 영문법에서는 영어 문장의 생성원리를 밝히고 심층구조를 만들어서 분석함으로써 학교문법에서 알맞지 않는 설명을 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안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영어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지도를 하고자 한다.

IV. 결 론

본 논문은 영어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to 부정사의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to 부정사 보문 구조를 갖는 동사들의 통사적 이론과 의미적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to 부정사 보문절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이해와 원리적 설명을 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II장에서 to 부정사의 보문이 사용되는 동사 유형을 *prefer* 동사유형, *try* 동사유형, *believe* 동사유형, *persuade* 동사유형, *promise* 동사유형, *seem* 동사유형의 6가지로 분류하고 그러한 동사 유형들과 *tough* 구문에 대해 분석했다. Chomsky (1981)는 영어 문장의 생성원리를 심층구조에 두고 그러한 심층 구조에서 to 부정사 보문절을 S' 구조로 보고 그러한 S'는 COMP(보문소)와 S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외현적으로 보이지 않은 주어를 PRO로 정하고 6가지 동사유형과 *tough* 구문의 기저구조를 설정하여 분석하게 된다.

Prefer 동사 유형은 to 부정사 보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와 같은 경우에는 표층에 나타나지 않고 다른 경우 표층에 나타난다. *Prefer*는 for-to 구문을 취하며 for-to 구문이 수동문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의사 분열문, 허사 it이나 there 삽입 등이 가능한 VP가 관할하는 NP이다. 반면에 *try* 동사 유형은 to 부정사 보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와 항상 같다. 그래서 to 부정사 보문의 주어는 PRO가 되며 for-to 구문을 취할 수도 없고 수동문, 의사 분열문 그리고 it이나 there 삽입 등이 불가능한 문장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Believe* 동사 유형은 *try*와는 반대로 항상 상위문의 목적어가 나타나고 그 목적어는 to-부정사 보문의 주어이다. 그러나 기저구조를 보면 S' 장벽으로 인해 to 부정사 보문의 주어가 격을 받지 못해 S'-Deletion라는 규칙을 적용해서 to 부정사 보문의 주어가 격을 받아 상위문의 목적어로 상승한다.

Persuade 동사 유형은 상위문의 간접목적어를 갖는 3항의 논항 구조를 갖는 동사로 *believe*와 *prefer*의 2항 동사와 구별된다. 그래서 간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문이 가능하고 상위문의 목적어와 to 부정사 보문의 주어와 항상 동일시된다. 그리고 *Promise* 동사 유형은 *persuade* 동사 유형과 논항 구조는 같지만 내부구조에 차이가 있다. *Promise* 동사

유형은 to-부정사 보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목적어가 아니라 상위문의 주어와 동일시된다. 그러므로 간접목적어가 수동문이 되지 못한다.

Seem 동사 유형은 to 부정사 보문의 주어가 공범주로 있는 상위문의 주어로 상승하는 ‘NP-movement’을 적용하고 이동한 후 남은 자리는 ‘t’라는 흔적이 생긴다. Tough 구문에서 NP이동은 seem과 같지만 to 부정사 보문의 목적어인 NP가 상위문의 주어로 상승하게 되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구문을 ‘Tough Movement’라 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분석이 제기되고 활발한 연구 중에 있다.

Ⅲ장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용해서 to 부정사의 사용 빈도수 중 보문절로서의 사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Ⅱ장에 분석한 to 부정사 보문절의 사용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Prefer 유형 동사가 사용 빈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try 유형, tough 구문, persuade 유형, seem 유형, believe 유형, promise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러한 동사 유형과 tough 구문에 대한 학교 문법 설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 Ⅱ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제시했다. 이 논문의 연구는 to 부정사 보문절을 좀 더 정확히 원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영어 학습이나 지도에 더 나은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잘못된 전통적인 문법 설명을 바로 잡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권태상(2008). *To-부정사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 김기훈(2012). *천일문 1001 Sentences Basic*, 씨듀출판사.
- 김대준(2008). *영어의 부정사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성곤(2013).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두산동아출판사.
- 김정애(2006). *To부정사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 김진완(2013).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천재교육출판사.
- 신정현(2013).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시사출판사.
- 윤만근(1997). *생성문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 이병춘(2004). *영어구문의 이해 I*, 서울: 한국문화사.
- 이영민(2007). *영어부정사 보충어절 문법*, 한국학술정보(주).
- 이찬승(2013).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능률출판사.
- 이찬승(2010). *Grammar Zone 종합편*, 능률교육연구소
- 이창봉(2013).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천재교육 출판사.
- 윤민우(2013).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두산동아출판사.
- 조수민(2011). *to-부정사 구문의 주어에 관한 통사적 연구: 최소주의 자질이론을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광희(1995). *영어 부정사 구문 연구: 전통문법에서 지배-결속이론까지*.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 홍순서(1998). *영어부정사 보문*, 서울: 동인.
- AkmJian A. and F. Henry (1975),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Mass.: The M. I. T. Press.
- Andrew Radford,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man, A. (1973). *A Constraint on Tough-Movement*. Papers from the Ninth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 34-43).
- Bonny, W. L (1976), *Problems in the Grammar and Logic of English Complementation*, I.U. Linguistic Club, Syntax and Semantics (3:1-220)
- Bresnan, J. W. (1970). *On Complementizer: toward a syntactic theory of complement types*. Foundations of Language (6:pp. 297-321)
- Bresnan, J. W. (1972). *The Theory of Complementation in English Syntax*,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MIT.
- Bresnan, J. W. (1976). *Nonarguments for Raising*. Linguistic Inquiry (7: pp. 485-501)
- Bresnan, J. W.(1982a). *Control and Complementation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13: pp. 343-434)
- Chomsky, N.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in R. A. Jacobs and P. S. Rosenbaum(eds.) (pp. 184-221)
- Chomsky, N. (1977b). *On WH-Movement*. Formal Syntax, in P.W. Culicover et al. (eds.) (pp. 71-132)
- Chomsky, N.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 pp. 1-46)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86b). *Barriers*. Cambridge, Mass: MIT Press.
- Jenkins, L. (1972). *Modality in English Syntax*, Mimeograph, Bloomington: Indiana Linguistic Club.
- Jespersen. O. (1965). *A Modern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Kiparsky, P. and C. Kiparsky, (1979). *Fact*, Syntactic Argumentation in D. S. Napoli and E. N. Rando (ed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pp. 328-358)
- Koster, J. and R. May (1982), *On the Constituency of Linguistics*, Language(58: 116-143)
- Martin, R. (2001). *Null Case and the Distribution of PRO*. Linguistic Inquiry (32: pp. 141-166).
- Palmer, F. R. (1974).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Group Ltd.
- Pizzini, Q. A. (1972). *A Transformational Analysis of Infinitival and Gerundive Complements in English*,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Postal, P. M. (1971), *Cross-Over Phenomena*,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Postal, P.M. (1970). *On coreferential Complement Subject Deletion*, Linguistic Inquiry (1: pp. 439-500).
- Postal, P. M. (1974), *On raising: one rule of English grammar and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Cambridge, Mass.: The M. I. T. Press.
- Rosenbaum, P. S. (1967a), *The Grammar of English Predicate Complement Constructions*, Cambridge, Mass.: The M. I. T. Press.
- Rosenbaum, P. S. (1976). A Principle Governing Deletion in English Sentential Complementation, in R. A. Jacobs and P. S. Rosenbaum(eds.)
- Stockwell, R. P., P. Schachter, and B. H. Partee (1973), *The Major Syntactic Structures of English*,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